

남해 '앵강다숲'서 매주 토요일 음악의 향연 펼친다

송고시간 | 2021-05-31 10:50

| 남해관광문화재단, 5일부터 '남해바래길 작은영상음악회'



남해 앵강다숲 전경

[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앵강다숲'에서 영상음악회가 정기적으로 펼쳐진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앵강다숲 내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 정문 앞 야외에서 '남해바래길 작은영상음악회'를 열어 지역민들과 수준높은 온라인 공연문화를 향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5일 시작하는 영상음악회의 6월 테마는 '팝페라'다.

제1차 영상음악회는 세계적인 남성 팝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 특집으로 꾸며진다.

또 남해바래길 4코스 고사리밭길 풍광과 매우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셀렌지오 2007년 야외공연 영상을 준비해 남해바래길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남해군은 탐방안내센터 정문 외곽과 실내에 200인치 규모의 암막 스크린을 설치하고 있고, 재단에서는 600W 앰프 스피커와 행사용 의자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영상음악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후 입장이 가능하며, 50명 이내로 관람할 수 있도록 의자를 야외에 배치한다.

비가 오면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 1층 실내에서 진행하며, 이때는 탐방안내센터 실내공간 특성상 30명까지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이번 정기 영상음악회 개최를 통해 남해를 찾은 숙박형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들이 즐길 공연문화 하나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31 10:5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